



새만금개발공사, 근로자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장성 숲체원'에서 임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근로자 마음건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사 설립 이후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전문 산림치유 서비스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편백나무 숲길 산책, 차 테라피, 소도구 스트레칭 등 오감을 자극하는 산림 치유 활동을 통해 일상의 긴장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 완료

남원시가 노후 건물번호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노출로 탈색되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워진 건물번호판을 정비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했다. 특히 건물번호판은 주소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이다. 시는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은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설치 후 1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번호판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482개의 노후 번호판을 순차적으로 교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순창소방서는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다. 이에 순창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으로 △산행 시ライター, 성냥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산림 내 흡연 금지 등을 강조했다. 순창소방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 우중(雨中) 속 신비로운 벚꽃 러닝

'2026 진안 벚꽃&웰니스 힐링 런트립' 성료... 코스 곳곳 절경 속 힐링·참가자 큰 호응

진안군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러닝 여행 플랫폼 '클투(CLTOO)'와 협업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2026 진안 벚꽃&웰니스 힐링 런트립(이하 런트립)'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런트립은 평균 해발고도 350m 진안고원의 청정 자연 속에서 달리기와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웰니스(Wellness) 관광의 진수를 보여줬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내린 부슬비는 진안의 대표 명소들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며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선사했다. 1일 차인 9일에는 참가자들은 기업과석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운일암반일암 계곡 코스를 달렸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곡 사이로 안개와 구름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비경이 연출됐으며, 빗속을 달리는 우중런(Run) 특유의 상쾌함이 더해졌다. 러닝 후에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 머물며 수압 마사지기 등 치유 장비 3종을 체험해 동진 근육을 풀고, 이어진 심암불명상으로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2일 차인 10일에는 아침 7시부터 마이산 남부 벚꽃길 모닝런이 진행됐다. 봄비에 촉촉하게 젖은 벚꽃길을 지나 종착지인 마이산 탐사에 다다르자, 비안개에 휩싸인 돌담 군락이 뿜어내는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에 참가자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번 행사는 유명 러닝 인플루언서 박지혜 아나운서와 전문 코치진이 동행해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배상길 포토그래퍼가 동원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의 '인생샷'을 남겨주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중산신협, 지역아동센터와 '신협 어부바 멘토링' 협약

아동 40명 경제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중산신협이 지역 아동들의 올바른 경제교육과 성장 지원을 위해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중산신협은 8일 태평본점에서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와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중산신협은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경제교육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일상 속에서 올바른 경제 개념을 익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양노 이사는 "어부바 멘토링 사업은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아동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소방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방안전교육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8일,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관들이 참여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활용한 119 신고 요령 △화재 시 '불나면 대피 먼저' 원칙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수군 지역 특성상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논·밭두렁 소각 행위 금지 및 산불 예방 수칙에 대한 집중 교육도 병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고창소방서, 민방위 대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민방위 대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임실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또래 관계형성 및 사회 구성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외부 전문 언어발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1대1 언어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만 3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1회, 회당 40분씩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교구와 교재를 활용한 교육이 이뤄진다. 사업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4) 전화접수와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imsil.familynet.or.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임실=진충영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